

농촌 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감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Groups According to Farm Work and Leisure Activity in Rural Elderly

김종인* · 김윤정**

Jong In Kim · Yun Jeong Kim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ays of improving life satisfaction of rural elderly by investigating their work and leisure activity, two significant axis of the life in later life. For this purpose, researchers and one assistant researcher visited house, senior citizen's center and health center, in order to have interviews with senior citizen above 65, who are currently working in the field. The summary of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ize of the farm land which each senior citizen works on is 9,237.92m² and they mostly work for economic reason. During farming season, they work on average 8.62 hour per day. As primary reasons for why farming work is difficult, "insufficient income" was picked. In fact, the average annual income senior citizens earn from farming is about 15.4 million won. 49.1% of sample senior citizens work both on watered farm and farm, and they are engaged in farming 48.82 years on average, showing that most of their lives have been spent on farming. In spite of these difficulties, most senior citizens showed high intention to continue farming work further. Second, senior citizens turn out to spend their leisure time mostly on public leisure activities such as watching TV, hearing radio and gatherings with families, relatives. However, individual activities such as meditation,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e-mail: KJI5335@hanmail.net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e-mail: twoyun21@hanmail.net

yoga, drawing and calligraphy turn out to be low because they require foundations to enjoy. Third, senior citizen in rural area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by farm work and leisure activity: group separated from work and leisure activity (27.09%), group centered to leisure activity (24.42%), group centered to work (23.75%), and group integrated work and leisure activity (23.75%). Fourth, the group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amely, male senior citizen, higher educational level, living in elderly couple households, and satisfied with their economic level belonged to the group integrated work and leisure activity. But senior citizen aged above 65 years old and working for their livelihood belonged to the group centered to work, and most of female and senior citizen aged above 80 years old belonged to the group separated from work and leisure activity. Finally, as the result of analysis of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farm work and leisure activity of senior citizen in rural areas, the group integrated work and leisure activity, and group centered to leisure activity were higher in life satisfaction than the group separated from work and leisure activity, and group centered to work. The above result indicates that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 depends upon leisure activity rather than work.

주요어(key words): 농촌 노인(Rural Elderly), 농사일(Farm Work), 여가활동(Leisure Activity), 삶의 만족감(Life Satisfaction), 일-여가활동유형(Groups According to Farm Work and Leisure Activity)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맞이하고 있다. 2012년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7%이며(통계청 DB, 2012),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통계청a, 2006).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의 경제 사회생활, 노인 인력의 활용, 여가활동, 소외감, 노인 부양, 건강상의 어려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1%(고령자통계, 2011)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3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노년기의 경제적인 어려움(고령자통계, 2010)과,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이 54.9%로 가장 많은 집(고령자통계, 2011) 등에서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농촌노인의 경우는 도시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높다. 농촌노인의 용돈마련방법은 농가의 남자노인은 71.1%가 여자노인은 51.1%가 직접 벌어서 쓰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비농가의 두 배 이상에 달하고 있어(통계청, 2009) 농사를 짓는 노인은 주로 본인이 벌어서 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65세 이상 농촌 노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이 50.2%로 가장 많았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1.6%), 도소매·음식숙박업(17.5%), 광공업(5.4%) 순으로 나타나 농촌노인의 생계기반은 농업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농사는 생계수단임과 동시에 농촌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종인 & 김윤정, 2010; 박공주, 김양희, 윤순덕 & 이정화, 2004; 박공주, 윤순덕, & 박정윤, 2007; 양순미, 홍성례, & 홍숙자, 2004; 이정화 & 한경혜, 2003), 본 연구에서도 농촌노인의 농사일과 삶의 만족감에 관심을 가졌다.

한편, 평균수명의 증가로 여가시간이 늘고 있는데, 노인들은 긴 여가시간을 창조적으로 보내기 보다는 대부분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김종인 & 김윤정, 2010; 최은지, 김경미, 이진영, & 강경하(2007).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집단 활동이

매우 유익하며, 여가활동에의 규칙적인 참여는 노인의 생활만족을 증진시키고, 창조적인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김재숙, 1998). 이처럼 여가활동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은 시절부터 노동과 근면성실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성장하였고 여가, 휴식, 즐거움은 배제된 삶을 살아 왔기 때문에, 여가활동이 주는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여가활동 사회화가 부족하였다(이정화 & 한경혜, 2003).

특히 노부부만 살거나, 노인인 부모와 역시 노인인 부양자녀가 사는 노인가구, 또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농촌사회에서는 일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이정화 & 한경혜, 2003), 노년기 일과 여가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과 여가활동의 실태를 밝힌 연구는 김경란 외(2001), 김주원(2004), 이정화 & 한경혜(2003), 조영숙, 이문주, & 황대용(2009)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자들은 일과 여가활동 중 한 부분에만 연구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과 여가활동 간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았다. 단지 노년기의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거나 여가활동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뿐, 노인의 삶에서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둘 간의 관계에 따라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노인의 삶의 만족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는 '첫째,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농촌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삶의 만족감의 차이는 어떠한가?'이다.

2. 선행연구고찰

2.1. 농촌노인의 농사일과 여가활동 실태

2.1.1. 농촌노인의 농사일 실태

농촌 노인의 경우 영세한 농업의 영농 여건상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보다는 약간의 노동력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직접 경영 형태이므로 육체적 한계에 이르기까지 농사일을 하게 된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2011)에 의하면 농가경영주의 33.7%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인데 이러한 수치는 2008년도에 비해 6.4%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3.7%로, 2010년에 비해 2%나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농가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70세 이상의 연령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농사가 노인에 의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의 농사가 주로 노인에 의한다는 것은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정화 & 한경혜(2003)의 연구에 의하면, 농사일에 '전적으로 참여' 하는 노인은 전체의 37.3%, '많이 참여'는 25.5%, '바쁠 때만 참여'는 18.0%, '거의 하지 않음'은 19.2%, 순으로 나타나 농사일을 도맡아 하는 노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이 노인에 의해 경작되는 것뿐 아니라 농촌노인의 농사일 시간도 상당히 길다. 농촌노인들의 상당수는 농번기에 8시간 정도의 농업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산업체 표준 근로시간인 8시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40대 50대 여성의 평균노동시간인 9.6시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김경란 외, 2011).

긴 시간동안의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도 노인들은 지속적으로 농사일을 하고자 한다. 농사일에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는 '농사일

을 계속하고 싶다'가 64.2%, '그만두고 싶다'가 38.5%로 나타나 농업노동 지속의사는 비교적 높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돈이 필요해서'가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농촌노인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란 외, 2001). 물론 연령이 많을수록 농사를 그만두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농사를 그만두겠다는 응답도 높았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간소득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김주원, 2004),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농사를 통한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경험적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의 영농실태에 대한 보고는 적다. 단지 김주원(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농촌노인의 영농실태를 보면, 경작규모가 500평 이하는 14.7%, 501평에서 1500평은 6.3%, 농사를 짓지 않거나 500평 이하의 소작농의 경우가 40%를 넘었고, 평균 경작 규모는 1,830평인 것으로 나타나, 농사짓는 노인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1.2. 농촌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1) 여가활동의 유형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가활동은 단일의 활동으로 제시되기보다는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Havighurst(1973)는 쾌적한 가정조성활동, 가족생활활동, 교회활동, 시민정치활동, 사회클럽활동, 친구관계활동, 취미·오락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Weiner(1973)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크게 능동적 여가활동과 수동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하였다(문희영, 2000). Szalai(1972)는 여가의 유형을 준여가, 수동적 여가, 완전

여가로 나누었다. 준여가(semi-leisure)에는 신체회복활동, 학습, 종교 활동, 조직활동을 포함시키고, 수동적 여가(passive leisure)에는 음악 감상, TV시청, 독서, 신문구독, 영화감상 등을 포함시켰으며, 완전 여가(total leisure)에는 관람, 오락, 사교활동과 스포츠, 능동여가 및 휴양 등을 포함시켰다(이숙자, 2000). 또한, Everard, Lach, Fisher, & Baum(2000)은 수단적 활동, 사회적 활동, 높은 수준의 여가활동, 낮은 수준의 여가활동으로 나누었다.

국내의 연구자들 역시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영애(1997)는 사회활동형, 스포츠활동형, 휴양형, 감상·교양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송정선(1996)은 자기개발유형, 가족중심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오락활동, 소일활동 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김종만(1998)은 자기개발활동, 가족중심활동, 종교·사회·경제 활동, 사교·오락활동, 소일활동, 스포츠활동, 독서활동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여가활동의 하위요인은 다르지만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지며 본 연구에서도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실태

2010 국민여가 활동조사(문화관광체육부, 2010)를 살펴보면, 6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휴식 46.6%, 사회 및 기타활동 21.9%, 취미오락활동 18.1%, 스포츠참여활동 4.4%, 문화예술관람 1.2%, 문화예술참여활동 1.0%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가시간에 주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V 시청이 42.2%, 산책이 16.2%, 낮잠이 15.5%로 주로 혼자 하는 단순한 여가활동에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2011)의 2011 사회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주말이나 휴일의 주된 여가활동

실태는 TV 및 DVD 시청 48.9%, 가사일 13.4%, 휴식 12.8%, 종교활동 12.6%, 사고관련 일 5.7% 등으로 TV와 DVD 시청을 주로 한다는 노년인구가 거의 절반에 달했다. 또한 김주현(2006)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소일활동, 가족중심활동, 자기개발활동, 사고·오락활동, 종교·사회활동 순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가족과의 대화, 신문 및 잡지 보기, 낚시·등산·걷기 및 산책, 약수터 가기,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은 참여도가 높은 반면, 서예 및 묵화, 그림 그리기, 사진촬영, 사회봉사활동, 묵상, 선, 요가, 단전호흡, 노인학교, 사회교육기관의 교양강좌 참석 등은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의 여가활동 역시 일반적인 노인의 여가활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이정화 & 한경혜, 2003; 홍성희, 류진아, & 임승희, 2011; 이현심 & 남희수, 2010; 문화관광체육부, 2010; 김주현, 2006; 통계청, 2010, 2011). 통계청(2011)의 2011 사회조사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주된 여가활동(15세 이상 전체 인구임)을 보면, TV 및 DVD 시청 42.4%, 휴식 16.8%, 가사일 20.9%, 종교 활동 6.7%, 사고 관련 일 5.9% 등으로 TV와 DVD 시청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9년 농촌생활지표(통계청, 2010)에 의하면 65세 이상 농가 노인의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TV와 비디오시청은 45.9%, 이웃과 이야기는 18.3%, 집에서 쉬는 11.8%, 운동·등산·낚시는 10.5%, 화투·장기·바둑은 6.5%, 신문과 책읽기는 3.4% 순이었다. 또한 이정화 & 한경혜(2003)에 의하면, 농촌 노인 중 39.7%는 여가시간에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나, 51.1%는 집에서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촌노인들은 여가시간이 날 때 '가끔' 혹은 '자주' 친척·친구·이웃 등을 방문하거나(75.7%), 노인정이나 노인교실에 나가는(68.3%)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노인정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회단체나 종교생활에는 약 40% 정도가 참여하고 있었다. 여행, 낚시, 운동, 등산 등 적극적인 취미활동 참여율은 16.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심 & 남희수(2010)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 노인 중 종교모임에 거의 매일 참여하는 경우는 7.67%에 달했고 그 다음이 노인정과 노인학교에 거의 매일 참여 하는 경우가 6.19%였다. 계나 친목회 및 동창회는 연 2~3회 참여가 24.18%였고, 사회봉사활동은 전혀 없다는 응답이 61.06%였다.

따라서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을 보면 전반적으로 TV 시청이나 휴식, 낮잠과 같은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2. 농촌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감

인간은 일을 통해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며, 사회의식을 정립하고 나아가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진다(이동춘, 1993). 따라서 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생존의 기본 조건을 잃게 됨을 의미하며, 나아가 사회적 지위 및 자아실현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에게 일, 즉 노동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원의 확보와 함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 시키며 역할 수행에 대한 자부심과 유용감, 자아정체감을 갖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최경숙, 2006, 권구영 & 최정민, 2007). 특히 산업화로 인한 젊은 노동력의 이농현상은 노년기까지 농사를 짓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영농자재 및 유통비, 인건비, 사료 값 등의 폭등은 영농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지만,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 농촌노인은 소일거리가 아닌 생활비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농사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농촌노인에게 농사일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일은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과는 달리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원 확보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역할 수행에 대한 자부심과 유용성, 자아정체감 등을 갖게 해주어(Rowe & Khan, 1998),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김미혜 & 신경림, 2005; 안정신, 강인, & 김윤정, 2009). 또한 노인의 경제력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얻어진 경제적인 이득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의 직업 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심리적 증상을 비교한 결과, 취업노인이 비취업 노인에 비해 심각한 심리증상이 적게 나타났고, 특히 우울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임설빈, 2012; 황미구 & 김은주, 2008).

노년기 여가활동 역시 노년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과된 일정한 역할 없이 시간적 여유가 많은 노인에게 고독과 무료함을 극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문영빈, 2003). 즉, 은퇴나 고령화로 사회적인 관계가 제한되는 노년기의 여가활동의 참여는 직장동료관계, 가족관계 등의 위축된 사회적 관계망을 보완·유지 또는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무위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유용감과 자아개념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어 노인들의 심리·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Lennartsson & Silverstein, 2001).

노년기 여가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역시 노년기 여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삶의 질을 높이며, 더 나아가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 요소임을 주장하고 있다(권중돈 & 조수연, 2000; 김수현 & 김윤정, 2011; 김양례, 2005; 김종인 & 김윤정, 2010; 김태현, 1998; 나항진, 2002; 이종영, 2005; 허준수 & 유수현, 2002; 조영숙, 이문주, & 황대용, 2009; McIntyre, Watson, & Cunningham,

1990).

이처럼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년기 일과 여가활동은 노년기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노인의 경우 일과 여가활동은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운 활동이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각기 분리시켜 연구를 함으로써 일과 여가활동 간의 관계에 따른 노년기 삶의 만족감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과 여가활동이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운 노년기의 특징을 고려하여,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노년기 삶의 만족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충남 지역의 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농사일을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가정 및 노인정, 보건소 등을 본 연구자와 보조연구원 2명이 방문하여 직접 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농사일을 현재 하고 있는 노인을 선별하기 위해 충남지역의 면지역 중 농사를 주고 짓고 있는 지역의 노인정이나 보건소, 마을의 이장님 등을 방문하여 농사를 짓는 노인을 소개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표본추출은 편의추출방식이다. 설문 조사 시에 본 설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노인 1인당 면접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60분이었다.

3.2. 측정도구

3.2.1. 농촌노인의 농사일

농촌 노인의 일은 농사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농사시간은 농한기의 농사시간과 농번기의 농사시간을 따로 물었으며 분석에서는 농번기의 농사시간과 농한기의 농사시간의 평균시간을 이용하였다.

또한 농촌노인의 농사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 노인의 농사일은 농지면적, 농사유형, 농사지은 기간, 농사 외의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만족감, 농사짓는 이유, 농사소득, 농사가 힘든 이유, 주로 농사를 짓는 지에 관한 물음, 농사지속희망 등을 측정하였다.

3.2.2. 농촌노인의 여가활동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은 여가활동참여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여가활동참여수준은 김선자(2001)의 여가활동 척도의 19개 문항에 본 연구자들이 한 개의 문항을 첨가하여 전체 20개의 문항으로 노인의 여가활동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안 한다(1점)'에서 '매우 자주한다(5점)'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 요인으로 나누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3.2.3. 삶의 만족감

Diener, Emmons, Larsen, & Criffin(1985)가 개발한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로서 5개의 문항이며 5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3이다.

3.3. 연구 대상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농촌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99명 중 남자노인이 전체의 45.5%, 여자 노인이 54.5%로 여자노인이 약간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가 47.8%로 가장 많았고, 60대 34.3%, 80세 이상이 17.8% 순이었으며 평균연령은 73.28세였다. 농촌노인의 교육수준은 초졸이 46.4%로 가장 많았고, 무학이 37.3%, 중졸이상이 16.3% 순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노인이 가장 많았다. 농촌노인의 가족동거여부는 전체의 57.9%가 노인 부부로 이루어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성인 자녀 및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26.9%였고, 독거노인은 15.2%였다. 종교가 없는 노인이 전체의 53.5%로 절반 이상의 농촌 노인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은 자신의 경제수준을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58.7%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경제수준을 '보통'정도로 지각하고 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스스로 버는 경우가 전체의 74.8%로 자녀들이 대주거나, 연금이나 생활보조금, 저축했던 돈을 찾아서 쓰는 경우보다 상당히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 농사를 현재 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된다(〈표 1〉).

〈표 1〉 농촌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99)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성별 (N=299)	남	136	45.5	-
	여	163	54.5	
연령 (N=297)	60대	102	34.3	73.28 (6.97)
	70대	142	47.8	
	80세 이상	53	17.8	

학력 (N=295)	무학	110	37.3	-
	초졸	137	46.4	
	중졸이상	48	16.3	
동거 (N=297)	독거	45	15.2	-
	부부단독	172	57.9	
	자녀 및 손자녀 동거	80	26.9	
종교 (N=299)	불교	74	24.7	-
	기독교와 천주교	65	21.7	
	무종교	160	53.5	
경제수준지각 (N=269)	나쁜 편이다.	51	19.0	-
	보통이다	158	58.7	
	좋은 편이다.	60	22.3	
생활비 마련 (N=294)	일을 해서 번다	220	74.8	-
	기타	74	25.2	

3.4. 자료분석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촌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농사일의 실태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여가활동의 실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다. 또한 여가활동을 하위요인으로 나누기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과 여가활동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농촌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삶의 만족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 실태

4.1.1. 농촌노인의 농사일의 실태

농촌노인의 농사일의 실태를 보면(〈표 2〉), 농지면적은 평균 9237.92평방미터이다. 1,001평방미터에서 3,000평방미터를 경작하는 노인이 전체의 20.4%이고, 10,001평방미터에서 20,000평방미터를 경작하는 노인이 20.1%이다. 5,001에서 7,000평방미터를 경작하는 노인은 전체의 16.7%이고, 7,001에서 10,000평방미터를 경작하는 노인은 전체의 13.4%이다. 노인이 짓는 농사의 유형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겸하는 형태가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다. 농업과 어업을 겸하는 경우는 26.8%로 그다음이고, 밭농사만 짓는 경우는 18.2%이었다. 농사를 지은 기간은 평균 48.82년으로서 평생을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있으며, 농사 외의 다른 일을 했다면 '삶의 만족감이 어떠했을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 '지금과 같았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9.2%로, 절반 정도의 노인이 '농사일이나 다른 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농사외의 일에 했었다면 '매우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와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15.0%에 비해, '만족했을 것이다'와 '매우 만족했을 것이다'의 응답이 전체의 35.8%로 직업으로의 농사일에 대한 불만족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농촌노인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았다. 전체 노인의 60.5%가 경제적 이유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는다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2.4%,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노인은 11.7%였으며, 농사일이 좋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노인도 1.7%이었다. 농사일을 통해서 농촌노인이 버는 연소득

은 평균 1540만 원 정도였다. 전체의 49.4%가 501만 원에서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만 원 이하가 12.0%, 3000만원 이상은 13.4%로 농촌 노인이 농사를 통해서 버는 소득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농사를 짓기 힘든 이유는 주로 불충분한 소득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6.3%였고, 건강과 일손 부족도 각기 30% 수준이었다. 농사일에 있어 '경작은 주로 누가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의 의존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3.0%이고 '조금 의존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6.5%여서 전체의 절반인 69.5%가 '남의 손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노인 스스로가 하는 경우도 13.4%이고, 다른 사람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는 경우도 3.0%이었다. 농촌 노인들은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을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전체 57.8%로 절반 이상의 노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의 28.1%의 노인은 '앞으로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하였다. 농촌노인의 농사의 시간을 보면, 농번기동안 농사짓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8.62시간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은 농사짓는 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10시간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의 20.4%로 가장 많았으며, 8시간이 17.1%, 12시간이 11.4%순이며 14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명(1.0%)이었다. 마지막으로 농사일에 대한 만족감을 살펴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50%로 절반이었고, 보통이다가 28%, 만족하는 경우가 22%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다(〈표 2〉).

〈표 2〉 농촌노인의 농사일 실태

(n=299)

	구분	N	%	M(SD)		구분	N	%	M(SD)
농지 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	22	7.4	9237.92 (10009.211)	농사 짓는 이유	경제적 이유	178	60.5	-
	1001-3000	61	20.4			자식뒋바라지	29	9.7	
	3001-5000	37	12.4			이웃과의 친목	9	3.0	
	5001-7000	50	16.7			소일거리	37	12.4	
	7001-10000	40	13.4			건강유지	35	11.7	
	10001-20000	60	20.1			농사일이 좋아서	5	1.7	
	20001평방미터 이상	29	9.7			기타	1	0.3	
농사 유형	논농사 밭농사 논농사와 밭농사 시설재배와 특용 작물	8	2.7	-	농사 소득	200만원 이하	36	12.0	1540.13 (1450.19)
		53	18.2			201-500만원	46	15.4	
		143	49.1			501-1000만원	74	24.7	
		5	1.7			1000-2000만원	74	24.7	
	농업과 농업과 농업과 어업	4	1.4	-	농사가 힘든 이유	20001-3000만원	29	9.7	-
		78	26.8			30000만원 이상	40	13.4	
		89	30.2			건강 불충분한 소득	107	36.3	
		83	28.1			일손 부족	83	28.1	
농사 지은 기간	30년 이하	28	9.4	48.82 (13.72)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	거의 의존	128	43.0	-
	31-40년	41	13.7			조금 의존	79	26.5	
	41-50년	94	31.4			반반이다.	42	14.1	
	51-60년	97	32.4			본인이 주로	40	13.4	
	61년 이상	39	13.0			전부 본인	9	3.0	
농사 외의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만족감	매우 만족하지 못 했을 것	7	2.3	-	농사 지속 희망	매우 그렇지 않다.	18	6.1	-
	만족하지 못했을 것 지금과 같았을 것	38	12.7			그렇지 않다.	65	22.1	
	만족했을 것	147	49.2			보통이다.	41	13.9	
	만족했을 것	95	31.8			조금 그렇다.	140	47.6	
	매우 만족했을 것	12	4.0			매우 그렇다.	30	10.2	
	계	299	100.0			계	299	100.0	

다음으로 농촌노인의 농사일의 수준을 농번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평균 8.62시간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시간 동안 일을 하는 노인이 20.4%, 12시간은 11.4%, 14시간 농사일을 한다는 농촌노인도 전체의 1%여서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의 농

사일 시간이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농촌노인의 농사일

(n=299)

	구분	N	%	M(SD)
1일 평균 농사시간 (농번기)	3시간	6	2.0	8.62 (2.72)
	4시간	23	7.7	
	5시간	22	7.4	
	6시간	15	5.0	
	7시간	30	10.1	
	8시간	51	17.1	
	9시간	21	7.0	
	10시간	61	20.4	
	11시간	14	4.7	
	12시간	34	11.4	
	13시간	19	6.4	
	14시간	3	1.0	

4.1.2. 농촌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의 실태는 각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표 4〉) 및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표 5〉)를 제시하였다.

농촌노인이 가장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TV시청과 라디오 청취는 5점 만점에서 4.52점으로 대부분의 농촌노인이 여가시간에 TV시청과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잔치집이나 친척집 방문이 3.81점이고, 종친회, 친목회, 동창회 등의 모임에의 참여가 3.12점, 가족동반 외식이나 외출, 여행이 3.05점 순이었다. 즉 농촌노인들은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와 같이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여가활동과 더불어 가족, 친척, 종친회와 같은 가족모임에 여가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촌노인의 여가활동 중 낮은 순을 보면, 가장 낮은 여가활동은 목상이나 참선, 요가, 단전호흡과 같이 홀로 앉아 참선을 하는 활동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예, 그림 그리기, 공예품 만들기가 1.36점이고, 음악회, 공연관람, 전시회 등은 1.52점, 사회단체 활동 참여는 1.64점이었다.

또한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수준의 전체 평균은 2.57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수준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다음으로는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을 요인분석을 하여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요인추출은 Maximun Likelihood 방식을 취하였고 요인회전은 Varimax 방식을 취하였다. Scree plot을 보고 요인수를 결정하였는데 전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5>).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58에서 .82까지이다.

<표 4> 농촌노인의 여가활동 수준

(N=299)

	M	SD
1. 가족 동반외식이나 외출, 여행	3.05	1.159
2. 옷놀이, 화투, 장기, 바둑	2.42	1.278
3. 노인회관, 공원 등에서의 노인들과의 어울림	3.23	1.178
4. 서예, 그림그리기, 공예품 만들기, 사진촬영	1.36	0.692
5. 종친회, 친목회, 동창회 등의 모임	3.12	1.159
6. 독서하기	1.58	0.996
7. 목상, 참선, 요가, 단전호흡	1.31	0.667
8. 각종 종교 활동 참여	2.44	1.569
9. 노인학교, 사회교육기관의 평생학습교육 참여	1.80	1.123
10. 집근처 정원등 화초, 나무 가꾸기	3.34	1.090
11. 목욕탕, 낮잠, 휴식 등 시간 보내기	3.69	0.772
12. 노래교실, 사물놀이	1.73	1.018
13. TV시청, 라디오 청취	4.52	0.626
14. 잔치집, 친척방문	3.81	0.744
15. 신문, 잡지보기	1.92	1.288

16. 각종 사회봉사 활동	1.80	1.124
17. 손자녀와의 대화 또는 놀아주기	2.92	1.168
18. 산책, 약수터가기, 등산 게이트볼	2.18	1.187
19. 음악회, 공연관람, 전시회	1.52	0.934
20. 사회단체 활동 참여	1.64	1.058
전체	2.57	.57

〈표 5〉 농촌노인의 여가활동 하위 요인별 신뢰도와 평균(표준편차)

	요 인	문 항	요인부하량	신뢰도	M(SD)
여가활동 하위 요인	소양교육 활동	신문, 잡지보기	.888	.82	1.64(.71)
		독서하기	.771		
		산책과 명상	.577		
		음악회, 공연관람, 전시회	.573		
		서예, 그림그리기, 공예품 만들기	.571		
		묵상, 참선, 요가, 단전호흡	.377		
	소일거리	목욕탕, 낮잠, 휴식 등	.407	.58	3.25(.55)
		잔칫집, 친척방문	.400		
		종교활동	.351		
		TV시청, 라디오청취	.328		
	사교활동	노인회관, 공원 등에서 노인들과 어울림	.994	.71	2.82(1.08)
		웃놀이, 화투, 장기, 바둑	.554		

각 하위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농촌노인의 소양교육활동은 1.64점으로 5점 만점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즉, 농촌노인은 신문이나 잡지를 본다거나 서예나 그림그리기와 같은 ‘소양교육’과 관련된 여가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소일거리’는 3.25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농촌노인은 휴식을 취한다거나 TV를

시청한다거나 종교활동과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여가활동의 수준은 중간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교활동'은 2.82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다. 즉, 농촌노인은 노인들과 어울린다거나 바둑, 장기 등 동년배 노인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 수준도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을 보면 소일거리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이 사교활동이며, 소양교육활동의 수준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4.2. 농촌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감

4.2.1. 농촌노인의 농사일과 여가활동 간의 관계

다음으로는 농촌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을 나누기 전 농사일과 여가활동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계수가 높은 하위 요인이나 변수를 선별해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활동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고, 농사일과 여가활동간의 상관계수는 낮아서 다음절에서는 농사일(농사시간)과 여가활동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6>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 간의 관계

(n=299)

	소양교육활동	소일거리	사교활동	농사시간
소양교육활동				
소일거리	.450***			
사교활동	.224***	.223***		
농사시간	.163**	.076	-.013	

** p<.01, *** p<.001

주: 농사시간은 농번기와 농한기의 평균시간을 사용함

4.2.2. 농촌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삶의 만족감

농촌노인의 농사일과 여가활동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농사일과 여가활동에 따라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농사일은 농사시간 평균점수인 5.5시간, 여가활동 평균점수 2.5점을 기준으로 하여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일-여가분리집단은 농사일과 여가활동 점수가 모두 평균 이하인 집단으로 81명(27.09%)이다. 여가중심집단은 농사일은 평균 이하이나 여가활동은 평균 초과로서 농사일보다는 여가활동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이며 73명(24.42%)이다. 다음으로 일중심집단은 여가활동수준은 낮으나 농사시간은 긴 집단으로 일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이며 71명(23.75%)이다. 마지막으로 일-여가통합집단은 농사일과 여가활동 모두 평균초과의 활동을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농사일과 여가활동 모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이며 74명(24.75%)이다. 이처럼 일과 여가활동에 따른 농촌노인의 집단 구분은 대략 24%에서 27%로 적절히 구분되었다.

〈표 7〉 농촌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차이

구분		농사여가				X ²
		일-여가 분리집단 (n=81)	여가 중심집단 (n=73)	일 중심집단 (n=71)	일-여가 통합집단 (n=74)	
성별 (n=299)	남	26(19.1)	37(27.2)	30(22.1)	43(31.6)	11.704**
	여	55(33.7)	36(22.1)	41(25.2)	31(19.0)	
연령 (n=297)	60대	19(18.6)	20(19.6)	33(32.4)	30(29.4)	30.180***
	70대	35(24.6)	43(30.3)	26(18.3)	38(26.8)	
	80, 90대	27(50.9)	10(18.9)	12(22.6)	4(7.5)	
학력 (n=295)	무학	42(38.2)	25(22.7)	32(29.1)	11(10.0)	35.577***
	초졸	34(24.8)	34(24.8)	30(21.9)	39(28.5)	
	중졸 이상	5(10.4)	14(29.2)	6(12.5)	23(47.9)	

동거가족 (n=297)	독거	14(31.1)	18(40.0)	9(20.0)	4(8.9)	17.036**
	부부단독	38(22.1)	37(21.5)	43(25.0)	54(31.4)	
	자녀맞손자녀 동거	27(33.8)	18(22.5)	19(23.8)	16(20.0)	
종교 (n=299)	불교	27(36.5)	18(24.3)	20(27.0)	9(12.2)	17.813**
	기독교·천주교	16(24.6)	20(30.8)	7(10.8)	22(33.8)	
	무교	38(23.8)	35(21.9)	44(27.5)	43(26.9)	
경제수준 지각 (n=269)	불만족	25(49.0)	7(13.7)	16(31.4)	3(5.9)	34.871***
	보통	42(26.6)	39(24.7)	37(23.4)	40(25.3)	
	만족	6(10.0)	22(36.7)	10(16.7)	22(36.7)	
생활비 마련 (n=294)	일해서번다	51(23.2)	36(16.4)	66(30.0)	67(30.5)	50.787***
	기타	27(36.5)	36(48.6)	5(6.8)	6(8.1)	

* p<.05, ** p<.01, *** p<.001

농촌 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동거가족, 종교, 경제수준지각, 생활비 마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노인은 ‘일-여가통합집단’이 가장 많고, 여자노인은 ‘일-여가분리집단’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농촌지역의 남자노인은 일과 여가활동 모두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으나 여자노인은 일과 여가활동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60대는 ‘일중심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70대는 ‘여가중심집단’, 80, 90대는 ‘일-여가분리집단’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60대 농촌노인은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70대는 여가중심적인 삶을 살고, 80대 이상의 고령의 농촌노인은 일과 여가활동 모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무학은 ‘일-여가분리집단’이 가장 많고, 초졸과 중졸 이상은 ‘일-여가통합집단’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력이 높을수록 일과 여가활동 모두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동거가족에 따라서는 자녀나 손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일-여가 모두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나 부부단독세대는 일과 여가 모든 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일보다는 여가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인 경우 '일-여가분리집단'이 가장 많았고, 기독교와 천주교는 '일-여가통합집단'이 가장 많았고, 무교인 경우 '일중심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지각 정도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에 불만족인 노인은 '일-여가분리집단'이 가장 많았으나, 경제수준에 만족하는 노인은 '여가중심집단'과 '일-여가통합집단'이 가장 많았고, 생활비마련을 일해서 버는 노인의 경우 '일-여가통합집단' 및 '일중심집단'이 많았으나, 기타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노인의 경우 '여가중심집단'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노인은 일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다.

〈표 8〉 농촌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감 차이

(n=299)

구분	N	M(SD)	F	Duncan
일-여가분리집단	80	2.85(.61)	35.245***	A
여가중심집단	73	3.43(.61)		B
일중심집단	71	2.77(.58)		A
일-여가통합집단	74	3.54(.50)		B

마지막으로 농촌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일-여가통합집단' 노인과 '여가중심집단' 노인의 삶의 만족감이 '일-여가분리집단' 및 '일중심집단' 노인의 삶의 만족감에 비해 높았다.

5.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충남 면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중 농사를 짓는 노인 299명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농촌노인 농사일의 실태를 보면, 농촌노인이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평균 9237.92평방미터이며, 농사를 짓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았다. 농번기동안 농사짓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8.62시간으로 이정화 & 한경혜(2003)의 연구와 유사하며,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노인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농사짓는데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사일에 대한 만족감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에 비해서 높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든 이유로 '소득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농사일을 통해서 농촌노인이 버는 연평균소득은 평균 1,540만원 정도였는데, 이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규모가 1천만 원 미만인 농가는 0.9% 증가한 반면 5천만 원 이상인 농가는 9.1% 감소했다는 결과(통계청, 2010)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농촌노인의 연평균소득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노인이 짓는 농사의 유형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겸하는 형태가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주된 영농형태가 논벼로 전체 농사의 4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통계청(2010)의 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충남지역의 농사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농사를 지은 기간은 평균 48.82년으로 거의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의 64.2%의 노인이 농사를 짓느라 건강이 쇠약해졌다는 응답을 보였다. 또한 '경작은 노인 스스로가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거의 의존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3.0%로 높았으며, 경제적

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농촌 노인들은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을 것'으로 나타나 이정화 & 한경혜(2003)의 연구와 비슷하다.

다음으로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의 실태를 보면, 농촌노인들은 TV 시청, 라디오 청취와 같이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여가활동과 더불어 가족, 친척, 종친회와 같은 가족모임에 여가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상이나 참선, 요가, 단전호흡과 같이 홀로 앉아 참선을 하는 활동이나, 서예, 그림 그리기, 공예품 만들기 등과 같은 소양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 노인은 여가시간에 TV와 비디오시청, 휴식 등 단조로운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주현(2006), 통계청(2010), 이정화 & 한경혜(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둘째, 농촌노인의 농사일과 여가활동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결과 '일-여가분리집단'은 81명(27.09%), '여가중심집단'은 73명(24.42%), '일중심집단'은 71명(23.75%)이다. 마지막으로 '일-여가통합집단'은 74명(24.75%)으로, 일과 여가활동에 따른 농촌노인의 집단 구분은 대략 24%에서 27%로 적절히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노인의 농사일과 여가활동 4집단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농촌지역의 남자노인은 일과 여가활동 모두 적극적인 경우가 많지만 여자노인은 일과 여가활동 모두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은 60대 농촌노인은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70대는 여가중심적인 삶을 살고, 80대 이상의 고령의 농촌노인은 일과 여가활동 모두로 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단독세대의 경우 일과 여가활동 모두에 적극적이었으며, 경제수준에 만족하는 노인은 '여가중심집단'과 '일-여가통합집단'이 가장 많았고, 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일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이 농사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여가중심적인 삶을 사는지, 혹은 일과 여가활동이 분리되거나 통합적인 삶을 살아가는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 관련 정책이나 여가활동 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노인을 단일집단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보다 세분화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감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일-여가통합집단' 노인과 '여가중심집단' 노인의 삶의 만족감이 '일-여가분리집단' 및 '일중심집단' 노인의 삶의 만족감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노인의 삶의 만족감이 '일'보다는 '여가활동'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농촌노인의 삶이 여가중심적이든, 일과 여가가 통합되었든 간에 여가활동에 적극적인 노인의 삶의 만족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촌노인이 충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여가활동은 TV시청이나 라디오청취, 가족모임 등 일상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농촌노인이 원하는 노인지원서비스로는 일자리와 여가활동 모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농촌진흥청, 2009)는 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농촌노인의 경우 농업이라는 직업상 시간의 제약성과 건강상의 어려움, 농촌지역의 교통의 불편함 등 농촌노인이 여가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여가시설이 농촌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 그리고 보다 근거리에 확충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일과 여가활동을 모두 적게 하는 '일-여가 분리집단'과 여가 활동시간 보다는 농사짓는 시간이 더 긴 '일중심 집단' 노인의 삶의 만족감이 낮았다. 일-여가 분리집단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이고 70대 이상의 고령인구가 많으며,

경제수준에 대한 불만족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년기 삶의 만족감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여성, 고령, 경제수준불만족인 경우 삶의 만족감이 낮은 것(권중돈, 조수연, 2000)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여가분리 집단'의 삶의 만족감 수준이 낮은 것은 그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일중심 집단'의 삶의 만족감도 낮았다. 그간 노년기 일은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종인 & 김윤정, 2010; 박공주, 김양희, 윤순덕, & 이정화, 2004; 박공주, 윤순덕, & 박정윤, 2007; 양순미, 홍성례, & 홍숙자, 2004; 이정화 & 한경혜, 2003)는 것이 큰 흐름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와 여가활동보다는 농사일을 더 많이 하는 '일중심 집단'의 경우 4집단 중 삶의 만족감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농사일에 대한 불만족, 농사일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보여주는 결과임에 동시에 노년기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사회활동으로서의 '일'은 노인의 삶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상황(고령자통계, 2011)에서 노년기 일이 노인의 삶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노년기 일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활동으로 일을 하는 노인에게는 사회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향상,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일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늘리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농사일과 여가활동을 단순히 병렬식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농사일과 여가활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삶의 만족감과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대상자가 충남지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적인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노인의 농사일과 여

가활동 간의 관계가 노년기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경우 도시노인과는 달리 평생 동안 농사일을 짓는다는 점에서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 간의 관계에 연구의 초점을 둔 연구로서 도시노인에게 일과 여가활동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간의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 참고 문헌 ■

- 고령자통계. (2010). 2010고령자통계. 통계청.
- 고령자통계. (2011). 2011고령자통계. 통계청.
- 권규영, & 최정민. (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과 삶의 질 간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38, 51-77.
- 권중돈, & 조수연. (2000). 위험군 노인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회학술대회자료집*, 75-81.
- 김경란, 이정일, & 정명수. (2001). 댄스스포츠 참여가 의사소통, 갈등해소 및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16(1), 1279-1294.
- 김미혜, & 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선자. (2001). 노년기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수현, & 김윤정. (2011). 노년기 여가활동참여와 성공적 노화 인식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3-23.
- 김양례. (2005). 노인의 생활체육참가와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8(2), 259-269.
- 김재숙. (1998). 일부 농촌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만. (1998).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종인, & 김윤정. (2010).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251-269.
- 김주원. (2004). 농촌노인 경제활동 실태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복지정책 개선방안—강원도 지역유형별 농촌노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177-193.
- 김주현. (2007). 한국노인의 생활세계를 통해서 본 노년의 긴장과 적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 (1998). 노년기 삶의 만족도 연구. *성신연구논문집*, 23, 181-199.

- 나향진. (2002). 노인학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여가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농촌생활지표. (2009). 농촌생활지표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2006). 농촌 도시노인의 삶의 질 비교 분석. 농촌진흥청.
- 문영빈. (2003).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연구; 청주시 노인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문희영. (2000).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화관광체육부. (2010).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보고서. 문화관광체육부.
- 박공주, 김양희, 윤순덕, & 이정화. (2004).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욕구실태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농촌사회, 14(2), 180-181.
- 박공주, 윤순덕, & 박정윤. (2007). 농촌노인의 경제활동향상 프로그램 개발. 농촌지도와 개발, 13(1), 69-83.
- 송정선. (1996).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신, 강인, & 김윤정. (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 양순미, 홍성례, & 홍숙자. (2004). 농촌노인의 사회활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4(2), 145-178.
- 윤순덕, & 한경혜. (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7-77.
- 임설빈. (2012).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일자리만족감,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춘. (1993). 동남아 정치론. 신성사
- 이숙자. (2000).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율동적 운동프로그램의 적용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0(3), 776-790.
- 이영애. (1997).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정화, & 한경혜. (2003). 농촌노인에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1), 211-213.

- 이종영. (2005).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가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심리적 인지 메카니즘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4(3), 167-183.
- 이현심, & 남희수. (2010). 농촌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경기도 여주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7(4), 957-984.
- 임설빈. (20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일자리만족감,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서산시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숙, 이문주, & 황대용. (2009). 농촌주민의 여가소비유형과 만족도. *농촌지도와 개발*, 16(4), 1021-1048.
- 최은지, 김경미, 이진영, & 강경하. (2007). 농업인 부부의 생활시간 조사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4(1), 231-247.
- 최경숙. (2006). 노인의 종교성향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a. (200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통계청b. (2006). *농촌생활지표*. 통계청.
- 통계청. (2009). *농촌생활지표*. 통계청.
- 통계청. (2011). *2011년 농림어업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11). *2011 사회조사*. 통계청.
- 통계청 DB. (2012). *통계청 DB*. 통계청
- 허준수, & 유수현. (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1-35.
- 홍성희, 류진아, & 임승희. (2011). 농촌노인의 여가생활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성별 마을회관 활용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8(3), 591-629.
- 황미구, & 김은구. (2008).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및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이 삶, 직무, 사회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3), 137-156.
- Diener, E., Emmons, R. A., Larso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Everard, K. M., Lach, H. W., Fisher, E. B., & Baum, M. C. (2000). Relationship of activity and social support to the functional health of older adults.

Journals of Gerontology, 55B(4), 208-212.

- Havighurst, R. J. (1973). Social role, Work, leisure, and education, In, c. Eisdorfer & M. P. Lawton (Eds),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598-618.
- Lennartsson, C., & Silverstein, M. (2001). Does engagement with life enhance survival of elderly people in Swede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6B, 335-341.
- McIntyre, C. W., Watson, D., & Cunningham, A. C. (1990). The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exercise and test stress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8, 141-143.
- Row,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논문투고일: 2011. 11. 25

1차수정일: 2012. 4. 11

2차수정일: 2012. 4. 20

게재확정일: 2012. 6. 15